

“국가적 위기속 거대 여당의 막중한 책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낙연, 텃밭 광주서 당권레이스 출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한 뒤 21일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속에 거대 여당을 이끌어가면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는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여권의 책임과 자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다는 뜻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중 가보지 않았던 거대 여당의 길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180석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가 3중, 4중으로 겹치는 상황에서 거대여당을 이끌어가면서 대처해 갈 막중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국난 극복을 위해 입법활동 등 많은 일이 있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초기 태세와 자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역점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중도에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뉴딜사업 균형발전 뉴딜 포함

4개 광역철도 내년 예산 반영

군공항 이전 국방부 대처 촉구

지역민 기대 부응 최선의 노력

도 언급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을 받게된다면 내년 3월에 대표를 그만 둘 가능성이 있다”면서 “임기가 짧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출마한 만큼 기간이 짧다면 불꽃처럼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리소어링 적극 유치를 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해 “위기 대응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에 균형발전 뉴딜을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뉴딜에 많은 자금을 지역에 배분하게 될 것이며, ‘위기 대응을 위한 격차 확대’의 전례를 반드시 깨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광역철도 추진이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용역 예산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 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16년 전 일이며,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한다면 현재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여야가 (국회와 청와대 등) 모든 것을 옮긴다는 것을 목표로 하되, 여야 간 협의의 진전에 따라 선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국회의 경우 분회의는 서울에서, 상임위는 소관 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남도 지사로 이 문제를 대거해왔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방부가 훨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 시절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볼 때 국방부의 노력이 컸다”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국방부의 태도 전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도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에 대한 애정과 지역민들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광주는 인생의 원점이고, 육신과 내면을 형성해준 인생의 출발점”이라면서 “저를 향한 사·도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21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성명은 가나다 순)

등록부문	성명(연령)	대표 경력
당대표	김부겸(62)	16·17·18·20대 국회의원, 전 행안부장관
	박주민(46)	전 최고위원, 20·21대 국회의원
	이낙연(67)	45대 국무총리, 37대 전라남도지사
최고위원	김종민(56)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20·21대 국회의원
	노웅래(62)	전 민주당 사무총장, 서울시장위원장
	소병훈(66)	전 민주당 제2사무부총장
	신동근(58)	전 민주당 원내부대표
	양향자(53)	21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일본특위 부위원장
	염태영(5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원욱(57)	19·20·21대 국회의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재정(45)	20·21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
	정광일(60)	전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한병도(52)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양향자·염태영 출마 선언...민주 최고위원 10명 등록 경쟁률 2대1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21일 현재까지 노웅래(서울 마포갑)·이원욱(경기 화성시)·이재정(안양시 동안구)·양향자(광주 서구)·한병도(전북 익산)·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10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은 21일 “경제 성공 없이 정권 성공 없고 정권 재창출의 힘도 경제에 있

다”며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삼성 전자 상무 출신으로 당 최고위원을 지낸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8명 중 한 명쯤은 실무경험 경험 있는 사람, 미래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당·정·청과 기술산업을 잇는 3+1 협의체를 만들고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켜 인재 육성과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정치의 가능성을 가능하는 실험이다. 저의 도전이 성공하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가 자 민주당의 성과가 될 것이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염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광주 지역 단체장·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염 시장은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국회·지자체 머리 맞댄 군공항 이전 의대 설립·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책 제시

지역 최대현안 논의 물꼬 성과

지역국회의원들 곧 만나 논의

국방부 소극 태도 변화도 주목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지역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등이 직접 만나 의견을 좁히고 있어 담보 상태에 빠진 지역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시와 전남도 사·도 상생의 결집들이었던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가세,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은 점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1시간여 열린 ‘6자 회동’은 군 공항을 넘겨받는 대신 전남이 얻게 될 보상이나 인센티브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7개 사·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 지원 이야기가 오갔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의대가 설립된다 해도 목포나 순천이 유력해, 군 공항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 지역 사회의 여론을 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주민 동의를 유도할 만한 지원책을 먼저 요구하는 전남의 입장과 지역 상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광주의 요구가 충돌해 그동안 보인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탕타는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피 시설을 받아야 하는 전남에서는 만남 자체가 이전 논의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는 만큼 대화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미뤄서만 될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 상생이 걸린 거대 현안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6자 회동’에 의미를 두면서 조만

간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 광산구와 서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7-8명이 모여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의견 차이가 극명해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동을 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이번 회동을 통해서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광주시와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논의하기로 해 군 공항 이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지역 정치권 등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방부의 향후 태도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이날 국방부의 태도 문제를 꼬집으면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제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성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